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4. 21.(화) 11:00 / 4. 22.(수) 조간 배포 2026. 4. 21.(화) 09:00

‘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 4종’ 첫 발간, 동물복지 농가 전용 기술 기준 제시

- 학계·산업계 협력…‘한국형 동물복지 사육 기술’ 첫 체계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사육 관리 기준 충족 기술 담아

- 인증 축종별 지침 개발 단계적 확대 추진…현장 확산 기반 구축

【관련 국정과제】80-1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우리나라는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했다. 올해 4월 17일 기준, 인증 농가가 520곳으로 늘어나는 등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동물보호법 제29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에 부응해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축산농가가 동물복지 사육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축종별 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 4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국립축산과학원이 학계·산업계와 협력해 그동안 축적한 연구 성과와 현장 기술을 바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을 알게 쉽게 풀어 수록했다.

특히 축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산란계(알 낳는 닭) △육계(고기용 닭) △임신돈 △분만돈 4개 축종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시설 설계 인증 기준을 자세하게 담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축산농가가 이번 지침서를 통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서에 실린 축종별 주요 사육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란계(알을 낳는 닭) 분야= 기존의 케이지 사육을 대체하는 평사·방사·다단식 사육환경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닭이 모래 목욕을 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등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란상(알을 낳는 전용 공간) 배치, 횃대(닭이 올라가서 휴식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등 시설 설계 기준을 담았다. 이러한 환경풍부화 요소를 적용할 경우, 누적 폐사율이 0.2%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깃털 쪼기 행동 원인과 개선 방법, 깔짚 관리 등 구체적인 사양관리 기술도 함께 정리했다.

△육계(고기용 닭) 분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닭의 행동 특성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 기준을 실었다. 이러한 환경풍부화 요소를 적용할 경우, 닭의 스트레스가 4.3%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임신돈 분야= 기존 감금 틀 사육을 대체하는 군사(무리)사육 체계*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 임신한 돼지를 개별로 가두지 않고, 여러 마리를 무리(그룹)로 사육하는 방식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식 모돈 급이기, 반스톨* 등 다양한 사육시설을 농가 규모와 자본 여건에 맞춰 비교 분석해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고정틀 뒷부분 일부를 제거하여 돼지가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개체별 칸 사육 방식

△분만돈 분야= 어미돼지의 행동 자유를 보장하면서 새끼 돼지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관리 기준을 담았다.

분만 직후 분만틀을 활용해 새끼 돼지 압사 사고를 예방하고, 분만 3~4일 후에는 분만틀을 개방해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외 분만틀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농가 여건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난방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정 온도·위생·환경 관리로 새끼 돼지 생존율을 높이고 어미돼지 스트레스는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지침서를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 기관에 배포해 기술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계획이다. 지침서 전문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4종 지침서 발간을 시작으로, 동물복지 인증 전 축종까지 기술 기준을 확대, 수립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이번 지침서는 농가가 동물복지 사육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축 스트레스 감소와 건강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한눈에 보는 동물복지 사육 관리 매뉴얼 4종
붙임2. 축종별 동물복지 사육시설 요약
붙임3. 책자 표지
붙임4. 묻고 답하기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휘철 (063-238-7300)
		담당자	연구사	김찬호 (063-238-7302)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1 한눈에 보는 동물복지 사육관리 매뉴얼 4종



붙임2 **축종별 동물복지 사육시설 요약**

□ 산란계 동물복지 사육시설 요약

구분	주요내용	동물복지 목적
사육시스템	·평사, 방사, 다단식 사육시설 등 케이지 프리 중심 사육시스템	·닭의 이동, 날개 펴기, 먼지목욕 등 자연행동 가능
홰	·닭이 올라가서 휴식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높은 곳에서 쉬려는 본능 충족, 스트레스 감소
난상	·알을 낳는 전용 공간으로 어둡고 조용하게 설계	·자연스러운 산란행동 유도, 바닥 산란(방란) 감소
급이기	·충분한 사료 접근이 가능한 급이 장치 설치	·경쟁 감소 및 안정적인 영양 섭취
급수기	·니플 또는 컵형 급수기 등 깨끗한 물 공급 장치	·위생적 음수 공급 및 건강 유지

- 산란계 동물복지 사육시스템 요약

구분			
	평사형	방사사육	다단식 사육
사육형태	·닭을 바닥 깔짚 위에서 자유롭게 사육하는 방식	·평사 + 외부 방목장 이용	·계사 내부를 여러 층 구조로 만든 시스템
특징	·계사 내부에서 이동 가능, 횃대, 난상, 모래목욕 공간 제공	·낮시간 동안 야외 방목 가능	·수직 공간 활용 ·난상, 급이, 횃대가 층별로 설치
장점	·자연행동 발현 가능 ·관리 비교적 용이	·동물복지 수준 높음 ·스트레스 감소	·공간 활용 높음 ·대규모 사육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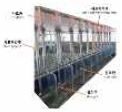
□ 육계 동물복지 사육시설 요약

구분	주요내용	동물복지 목적
계사 구조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햇빛이 일부 들어오는 구조로 설치하며,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	·계군 상태 관찰 및 건강관리 용이
사육밀도	·동물복지 기준 19수/m^2 이하	·과밀 방지, 움직임 확보
환기 및 온도관리	·환기팬 및 공기순환 시설 설치, 여름 냉방 및 겨울 보온 가능하도록 단열설계	·고온 및 저온 스트레스 예방
바닥 및 깔짚	·바닥에 충분한 양의 건조하고 부드러운 깔짚 제공, 젖거나 뭉치지 않도록 관리	·먼지목욕, 탐색행동 유도
급이시설	·급이기를 충분히 설치하고 계사 전체에 균등 배치	·사료 접근성 확보 및 경쟁 감소
급수시설	·니플 또는 컵형 급수기 설치, 깨끗한 물 지속 공급	·탈수 예방 및 건강 유지
환경풍부화	·홰, 플랫폼, 쪼는 물건 등 제공	·활동성 증가 및 스트레스 감소
조명시설	·일정한 점등 프로그램 운영, 최소 6시간 이상 연속 암기	·휴식과 활동 리듬 유지

- 육계 동물복지 환경풍부화물

		
홰	홰 제공	그레인 블럭 제공

□ 임신돈 동물복지 사육시설별 특징 및 관리방법

구분	자동군사급이기	자동 급이기	자유 출입스톨	반스톨
입실 전 관리	·사료 섭취가 원할하도록 설계하고 장비 상태 및 운영 방법을 사전에 확인	·사료 섭취가 원할하도록 설계하고 장비 상태 및 운영 방법을 사전에 확인	·스톨 간 충분한 공간 확보, 공용 공간과 급수시설 준비	·모돈 체형에 맞는 스톨 선택, 공용 공간 및 급수 시설 확보
입실	·비슷한 산차로 그룹 구성, 초산돈은 RFID 부착후 5~6주령에 군사시설 입실	·비슷한 산차로 그룹을 구성하고 RFID 부착 후 군사시설 입실	·비슷한 산차로 그룹 구성 후 수정 5~6주에 군사시설 입실	·비슷한 산차로 약 10두 내외 그룹 구성 후 수정 5~6주에 입실
적응 훈련	·사료로 유도하여 기기 이용 훈련실시(약7~14일)	·사료를 이용해 기기 이용을 유도하며 약 7~14일간 적응 훈련 실시	·사료 섭취와 스톨 출입 가능 여부를 관찰하며 적응 유도	·사료·음수 섭취와 스톨 출입 여부를 관찰하며 적응 유도
사료 조절	·개체별 체형, 체중, 임신주차에 맞게 사료 급이량 조절	·BCS, 체중, 임신주차 등을 고려하여 개체별 사료 급이량 설정	·그룹 평균 BCS와 임신 주차를 기준으로 사료량 설정	·그룹 평균 BCS와 임신 주차 기준으로 사료량 설정
개체 관리	·개체별 사료 섭취 확인 및 미섭취 개체 별도 관리	·개체별 사료 섭취 여부 확인 및 미섭취 개체 별도관리	·관리자가 사료 섭취 및 개체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시 개별 관리	·관리자가 사료 섭취 여부와 개체 상태 관찰
퇴실	·분만 7~14일 전 분만사 이동, 시설 세척 및 건조	·분만 7~14일 전 분만사 이동, 시설 세척 및 건조	·분만 7~14일 전 분만사 이동, 시설 세척 및 건조	·분만 7~14일 전 분만사 이동, 시설 세척 및 건조
관련 사진				

□ 분만돈 동물복지 사육관리 시스템 요약

구분	주요기능	기대효과
분만틀 구조	·개폐 가능한 분만틀 구조 적용	·분만 초기 자돈 압사 예방
모돈 활동관리	·분만후 약 3~4일 이후 분만틀 개방	·모돈 자유로운 활동 보장
분만틀 배치	·사선 구조 배치	·대형 모돈 공간 확보 및 자돈 수유공간 확보
자돈 보호 장치	·안티라링 바 설치	·자돈 체온 유지
자돈관리 위치	·통로 쪽 배치	·관리자의 관찰 및 치료 용이
바닥 시스템	·다양한 바닥 구조 적용 가능	·위생 및 배수 관리

- 분만돈 사양관리 운영단계

단계	관리방법
분만 전	· 분만틀을 닫아 모돈 이동 제한
분만 직후(1~4일)	· 모돈 움직임 제한하여 자돈 압사 예방
분만 이후	· 분만틀 개방하여 모돈 자유 활동
포유기	· 자돈 보온 및 급수 관리

- 분만돈 사육시설(그림)


그룹 포유 시스템


초기보호 강화형 분만틀


완전 개방형 분만틀

<사진 출처: SKIOLD>

붙임3 **책자 표지**

□ 동물복지 축종별 사양관리 지침서(산란계, 육계, 임신돈, 분만돈)



산란계 사육관리 지침서



육계 사육관리 지침서



임신돈 사육관리 지침서



분만돈 사육관리 지침서

붙임4 **묻고 답하기**

Q1 지침서를 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최근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농가에서는 실제 사육 현장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와 현장 기술을 바탕으로 농가에서 활용 가능한 동물복지 사육 관리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Q2 이번 지침서는 일반 농가도 활용할 수 있나요?

○ 이번 지침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료로, 동물복지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특히, 사육시설 환경 관리, 행동 특성 고려 관리 방법, 건강관리 기술 등을 통합적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동물복지 기반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Q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 심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Q4 이번 지침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인가요?

○ 이번 지침서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기존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농가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토대로 기술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 사육환경 관리, 사양관리, 시설 관리, 건강관리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Q5 동물복지 사육 관리 기술 적용 시 기대효과는?

○ 동물복지 사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현장 적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는 가축의 스트레스 감소와 건강 개선으로 이어져 생산성 안정과 질병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아가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과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6 현재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은 어떤가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축종별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란계, 육계, 돼지를 중심으로 인증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6년 4월 17일 기준 총 520호로 산란계 293호, 육계 152호, 돼지 29호, 한우 20호, 젖소 26호 입니다.

○ 가금류 인증 비율이 전체 인증 농가의 약 8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동물복지 인증이 가금을 중심으로 선도되고 있습니다.

○ 동물복지 계란 및 닭고기가 주요 대형마트와 생협*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일상적인 구매과정에서 가치소비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생활협동조합

○ 또한, 가금 분야는 한우나 대형 가축에 비해 사육환경 변화와 시스템 구축 등 동물복지 기준에 맞춘 시설 전환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7 동물복지 사육환경을 도입할때 농가에서 어려움은 없나요?

○ 일부 농가에서 시설 개선 비용이나, 관리 방법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사육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정보와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번 지침서는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고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Q8 동물복지 사육 관리 기술을 적용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요?

○ 동물복지 사육환경은 가축의 스트레스 감소와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관리 기술이 함께 적용될 경우 질병 감소와 생산성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이번 지침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와 현장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복지를 함께 고려한 사육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9 이번 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는 언제부터 농가에 보급이 되나요?

○ 이번 지침서는 브리핑 이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축산농가와 지도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 현장 기술 지도와 농가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